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86호 【루계 제24964호】 주체104(2015)년 7월 5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이 준 과업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철저히 관철하자

단숨에의 기상으로 맡은 대상건설에서 높은 속도 창조

백두산선군청년2호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군인들 발전기실내외부미장 결속, 압력관로매몰 및 취수탑콩크리트타입, 침수지역 살림집건설 힘있게 추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으로 달려온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일당백혁명강군의 단숨에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발전기실벽체축조 및 지하, 지상내외부미장공사가 결속되고 천정기중기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였다. 조압수조방수미장이 기본적으로 끝나고 압력관로매몰과 취수탑, 경사배수로콩크리트타입이 본격화되여 2호발전소부문 총공사량의 많은 몫이 수행되였다. 여러 지구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침수지역 살림집건설을 맡은 각 부대의 군인들도 벽체축조를 짧은 기간에 결속한데 이어 지붕목조공사, 내외부미장공사를 각각 85%, 65%계선에서 동시에 힘있게 내밀면서 나무심기, 구획정리작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군민결의대회가 있은지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2호발전소와 살림집건설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나선 일당백 조선인민군의 단숨에의 기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로서 당창건일혼돐전으로 맡은 대상공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인민무력부 현장지휘부 일군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비상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각 부대별, 공사대상별전투과제를 명백히 준데 따라 전반적인 공사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특히 수송이자 공사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집중수송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전투정황에 맞게 수시로 진행하여 물동량과 설비수송에서부터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조선인민군 류철수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발전소부문 공사의 대부분을 맡아 기적창조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부대의 지휘관들은 발전기실, 조압수조, 압력관로, 취수탑 등 여러 대상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조건에 맞게 구분대별작업과제와 력량편성을 기동적으로 따라세우고있다. 발전기실공사를 맡은 구분대들의 군인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기개를 남김없이 과시하여 6월초까지 벽체축조를 끝낸데 이어 지상 및 지하내외부미장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다. 그 기세로 6월말부터 부속건물건설에 또다시 달라붙어 4 000㎥이상에 달하는 기초굴착과 혼석다짐작업을 끝낸데 이어 지금 지상벽체조립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방명철소속구분대 군인들이 조압수조방수미장을 기본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압력관로매몰콩크리트타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곳 구분대군인들은 새롭게 제기된 취수탑공사과제를 맡아 짧은 기간에 굴착공사를 끝내고 타입전투에 들어가 매일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광철소속부대 군인들이 맡은 대상공사장마다에서 혁명군대의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서두수우안옹벽공사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남달리 불리한 작업조건에서 위훈창조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차디찬 서두수의 물속에 주저없이 뛰여들어 100m이상에 달하는 수중옹벽기초콩크리트치기를 해제낀 군인들은 지금 여러 구간에서 매일 백수십㎥의 옹벽콩크리트치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경사배수로공사를 맡은 부대의 군인들은 발도 붙이기 힘든 경사급한 산탁을 함마와 정대로 1 000㎥이상이나 까낸데 이어 배수로콩크리트타입속도를 부단히 높이고있다. 살림집건설을 맡은 여러 부대의 군인들은 건설장적인 본보기호동을 훌륭히 완성한데 이어 지금 살림집들의 지붕기와씌우기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인민군 홍찬길소속부대 군인들이 침수지역 살림집건설에서 높은 속도를 발휘하고있다.

그들은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짧은 기간에 방대한 조압수조뒤 산옹벽공사를 해제껴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군대의 일당백공격정신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살림집건설에 달라붙은 군인들은 벽체축조를 불이 번쩍 나게 끝내고 지금 지붕공사와 내외부미장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내밀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광준소속부대의 군인들도 서두수좌안석축공사와 살림집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6월 상순까지 수백m에 달하는 좌안석축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와닥닥 끝낸 김승삼소속부대의 군인들은 지금 공사조건이 마련된데 따라 마지막구간의 석축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끝내기 위한 돌격전을 힘차게 들이대고있다. 천수지구의 침수지역 살림집건설을 맡은 여러 부대의 군인들은 남달리 어려운 공사조건이지만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지붕목조공사를 85%이상 해제끼였다. 그들은 살림집내외부미장공사를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해제낄 높은 목표를 내걸고 요즘 매일 1 000㎡이상의 공사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긴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발휘하고있는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는 이곳 백두대지의 발전소건설장에서 시간마다, 날마다 사람들을 놀래우는 위훈과 기적을 낳고있다. 단숨에의 기상안고 완공의 그날을 앞당겨가는 우리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2호발전기실은 자기의 모습을 완연히 드러내고 서두수좌우안은 두달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였으며 산간벽지에 희한한 문화농촌마을들이 일떠서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청천강전역에 보낼 발전설비생산과제 빛나게 결속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에 빛나는 로력적선물을 안고 들어설 불타는 일념으로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속에 굴지의 기계제작기지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자랑찬 승전포성이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일터마다에서 결사관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온 이곳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수십대의 발전기생산을 모두 성과적으로 끝내는 눈부신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창건 일혼돐이 되는 뜻깊은 10월에 청천강전역에서 전력생산의 동음이 울리는가 못 울리는가가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년초부터 대안의 로동계급은 일터마다에서 총공격전의 불길을 활화산마냥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련합기업소책임일군들은 내각과 해당 부문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청천강계단식발전소들의 건설공사에 발맞추어 타빈과 발전기, 변압기 등의 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든 공정에서 생산일정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경제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특히 축, 고정자, 복철 등 대형부속품가공을 앞세우면서 자극압축단판과 나사류를 비롯한 조립부속품생산을 적극 따라세워 호기별에 따르는 발전기와 타빈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응당한 힘을 넣었다. 생산부문의 직장, 작업반들에서 높은 전투목표를 내세우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대책들을 적극 따라세우면서 일군들부터가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였다.

발전설비생산부문의 직장들에서 전례없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발전설비1가공직장 가공8작업반원들을 비롯한 모든 가공작업반의 기대공들은 작업반별, 기대별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복철과축, 고정자가공에서 높은 가공속도를 기록하였다.

발전설비2가공직장, 조속기직장에서는 기대별, 개인별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총돌격전이 치렬하게 벌어져 매일 많은 량의 조립부속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조속기생산성과가 눈에 뜨이게 확대되였다. 발전설비조립직장현장에 달려나온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지난 3월에 5대의 발전기를 조립하는 기적을 창조한 이곳 조립공들은 호기별고정자, 회전자조립전투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4월 하순에 들어와 3일에 한대분씩 조립하는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타빈생산을 맡은 대상설비생산부문의 전투장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대형기계직장 가공4작업반원들이 단 26시간만에 타빈축과 발전기축의 동시가공을 끝내는 최고기록을 세울 때 타닝반을 맡은 기대공들은 보링반에서 밖에 할수 없다던 작업날개동체가공을 대담하게 타닝반에서 진행함으로써 전반적인 공정추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상설비조립직장 청년작업반원들과 기업소의 여러 단위에서 달려온 종업원들은 교대가 따로 없는 생산돌격전을 벌려 품이 많이 드는 작업날개들의 연마가공을 조립일정에 확고히 앞세웠다. 특히 이곳 직장의 조립공들은 작업날개조립과 타빈축조립에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매달 4대의 타빈조립을 보장하는 혁혁한 위훈을 창조하였다.

대안전기공장과 룡강전동기공장의 일터마다에서도 변압기를 비롯하여 청천강전역에 보낼 각종 설비생산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졌다.

뜻깊은 4월까지 이미 270여대의 각종 전압 및 전류변성기, 10여대의 변압기생산을 결속한 대안전기공장의 로동계급은 충천한 기세로 마지막 대용량변압기생산에 드센 박차를 가하여 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완수하였다. 룡강전동기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맡은 대상설비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제기된 과제들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전국의 수십개에 달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고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부대설비들과 협동품들의 생산보장을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대안로동계급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청천강전역에 보낼 발전설비생산과제를 전량 빛나게 결속한데 맞게 해당 부문,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수십대의 발전기를 건설장에 보내준 성과에 기초하여 나머지 발전기들을 빠른 시일안에 운반하기 위한 전투를 박력있게 벌리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이룩된 자랑찬 발전설비생산성과는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청천강용사들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우리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혜산시가 백두산의 관문도시답게 변모된다

량강도에서

백두산의 관문도시인 혜산시에서 거창한 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량강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답사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도소재지 혜산시를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혜산시를 잘 꾸려야 합니다. 혜산시는 도소재지일뿐아니라 국경도시이며 량강도혁명전적지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에서는 혜산시건설을 전례없는 규모에서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혜산시와 각 군들, 련합기업소, 관리국들에서 건설을 맡아수행할 돌격대를 조직하고 해당 단위들에서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또한 능력있는 일군들로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짧은 기간에 혜산시건설과 관련한 설계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힘있는 선전선동력량으로 일대 사상공세를 들이댐으로써 건설장들마다에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량만이 차넘치도록 하고있다.

시내중심을 따라 체육관건설과 살림집, 공공건물들에 대한 보수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서 진행되는 혜산시는 지금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현장지휘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시공일군들을 위한 협의회를 조직하고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도록 하고있다.

량강도도시설계연구소의 설계가들은 건설대상들의 특성이 잘 살아나게 하면서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요구를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설계의 질을 높이고있다.

체육관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원칙에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마감작업을 깐지고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립체률동영화관건설도 마감단계에 들어서고있다. 건설자들은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관람실, 률동오락실을 비롯한 내외부건축공사를 끝내고 지붕공사준비를 다그치고있다.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종합적인 편의봉사시설인 목욕탕과 리발, 미용, 안마, 전자오락실이 갖추어지고 청량음료봉사도 할수 있는 압록원이 완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자욱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량강도도서관과 혜명려관개건공사, 살림집건설 및 보수공사가 방대한 규모에서 벌어지고있다.

혜산, 혜명동지구의 살림집건설을 맡은 건설자들은 기초굴착과 벽체축조공사를 다그쳐 맡은 공사대상들이 완공단계에 들어설수 있게 하였다.

대홍단군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계절적영향을 극복할수 있게 살림집건설과 관련한 공사일정을 합리적으로 타산하고 로력과 기계설비들을 집중시켜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살림집골조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혜산시와 도급기관들이 맡아 건설하는 살림집건설장들에서도 련일 혁신적성과가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철도연선의 면모를 일신

강계시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물질적지원과 로력적지원도 잘하여야 합니다.》

강계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흥주—공인철도연선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당책임일군이 강계철도분국 일군들과 함께 로선을 밟으면서 철길의 견고성을 보장하고 철도연선을 문화성있게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휘부를 조직하였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목재와 세멘트를 비롯한 많은 건설자재들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면서 생산한 통나무들을 제때에 수송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이어 옹벽쌓기에 필요한 천수백㎥의 막돌과 수백㎥의 모래를 해결하여 공사장에 보내주었다.

강계연필공장, 강계목재일용품공장, 강계세멘트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켠나무와 세멘트를 보장하였다. 공사에 동원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수백m의 철길뚝사면정리공사, 암거공사를 진행한데 이어 수백m에 달하는 철길옆 옹벽쌓기공사를 힘있게 벌렸다.

인민군군인들이 공사를 적극 도와주었으며 시안의 녀맹원들이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있던 옹벽을 흔적도 없이 들어내고 천수백㎥의 토량을 처리하면서 기초콩크리트치기공사를 하고 천수백㎥의 옹벽쌓기공사를 6일동안에 끝내는 로력적위훈을 떨치였다. 이와 함께 물도랑정리공사를 끝냈고 수천㎡에 달하는 철길주변에 5만그루의 왜싸리, 150만포기의 코스모스를 심었으며 철길주변의 다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색갈고운 외장재를 칠하였다.

지휘부일군들의 빈틈없는 작전과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흥주—공인철도연선이 환하게 변모되였다.

특파기자 동세웅

굴진을 앞세워 더 많은 석탄을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순천지구 청년탄광련합기업소에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굴진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더 많은 탄밭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있게 내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기적창조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굴진공들속에 들어가 화선식정치사업을 드세게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탄광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월초에 세웠던 굴진목표에만 매달리지 않고 수시로 변화되는 막장조건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진행하여 매일 높이 세운 굴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최근에만도 련합기업소에서는 막장에 필요한 압축기, 착암기, 탄차를 비롯한 수백대의 설비들과 탄차바퀴, 탄차축, 배관, 경질합금 등 많은 자재와 부속품을 탄광들에 제때에 보장해주어 굳은 암반을 밀어제끼고 굴진속도를 1.2배로 높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탄광들에서는 굴진계획수행과 관련한 총화평가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굴진공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굴진공들의 혁명적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속에 같은 로력, 같은 설비를 가지고도 예비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하면서 굴진에서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2.8직동청년탄광의 일군들과 굴진공들이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실적을 올리고있다.

탄광의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며 굴진공들과 함께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9갱 류철남고속도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이 여러가지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강성갱 김영택고속도굴진소대, 2갱 굴진1소대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막장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매일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천성청년탄광의 일군들은 갱막장에 들어가 굴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설비, 자재, 부속품보장을 제때에 따라세우면서 굴진공들모두가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굴진막장들에 당의 구호들과 표어들을 게시해놓고 화선식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며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과정에 김혁청년돌격대, 7갱 굴진4소대, 10갱 굴진1소대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며 힘찬 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령대탄광에서도 련속천공, 련속발파를 들이대며 기세좋게 전진하고있다.

1갱 손성호고속도굴진소대, 6갱 굴진1소대, 7갱 굴진2소대들에서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굴진속도를 부단히 높여가고있다.

더 많은 탄밭을 마련하기 위한 련합기업소굴진공들의 열의는 그대로 석탄증산으로 이어지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구, 분구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명부 공시

【평양 7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구, 분구선거위원회들에서 4일 선거자명부를 공시하였다.

선거자명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철저히 준하여 작성되였다.

선거자명부에는 해당 지역안에 거주하고있는 선거권을 가진 모든 공민이 등록되였다.

선거자들은 공시된 명부의 정확성여부를 확인하고있다.

선군혁명개척의 길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조선혁명군결성 기념일을 맞으며

7월,

일제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더욱 뜨겁게 안겨드는 나날이다.

바람세찬 우리 혁명의 초행길에서 조선혁명군이 결성되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85년의 세월이 흘렀다.

추억의 돛을 올려 력사의 그날을 돌이켜보느라면 조선혁명군결성을 선포하시던 백두산청년장군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10대의 그 시절에 새 세대 청년혁명가들로 첫 무장조직을 결성하시고 일제를 반대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이 땅의 모든 승리에 대하여 우리 어찌 생각할수 있으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대로, 선군으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시고 혁명승리의 길을 열어오시였다.》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그 세월 일제에게 빼앗긴 국권을 찾아보겠다고 나섰던 의병들의 화승총도 무참히 꺾이우고 독립군의 투쟁도 락엽처럼 스러지고있을 때 우리 인민은 민족의 존엄을 빛내줄 참다운 인민의 무장력을 얼마나 갈망하였던가.

1930년대초 조성된 정세는 폭력적성격을 띠고 급격히 고조된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조직적인 무장투쟁에로 발전시킬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시기에 일제와 혈전을 벌리자면 새 세대 혁명가들의 손으로 새형의 군대를 창건하여야 하며 무장투쟁만이 가장 철저하고 혁명적인 반일항전으로 될수 있다고 확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당시 새 세대 혁명가들에게는 무장투쟁을 벌리는데 필요한 지식이 별로 없었으며 그렇다고 본보기로 삼을만 한 군사교범이나 경험이 있는것도 아니였다.

무장투쟁의 밑천이 있었다면 독립군과 화성의숙출신의 여러 동지들과 몇자루의 권총이 있었을뿐이였다.

결국 백지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무기도 자체로 획득하고 군사적경험도 축적하여야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린다는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과도적인 정치 및 반군사조직을 내오실것을 결심하시였다.

조선혁명군의 정치군사활동을 통하여 무장투쟁의 대중적지반을 축성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축적하자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의도였다.

카륜회의후 불과 며칠사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첫 무장조직에 받아들일 청년들을 선발하는 문제와 무기를 마련하는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도록 하시여 조선혁명군결성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시였다.

주체19(1930)년 7월 6일,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고유수의 삼광학교 운동장에서 조선혁명군결성식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성식에서 **《조선혁명군의 사명과 기본임무에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은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준비하기 위한 새 세대 조선혁명가들의 정치 및 반군사조직이라고 규정하시였으며 조선혁명군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상비적인 혁명무력이 창건될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군의 기본사명은 도시와 농촌에 들어가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그들을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면서 무장투쟁의 경험을 쌓고 장차 본격적인 무장대오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나가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대오를 꾸릴수 있는 골간을 육성하는 문제, 혁명군대가 의거할수 있는 대중적지반을 꾸리는 문제, 무장투쟁을 벌리기 위한 군사적준비를 충분히 갖출데 대한 문제 등 조선혁명군이 당면하게 수행하여야 할 과업에 대하여서도 명철하게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

조선혁명군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깊은 연설은 모임참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무기와 조선혁명군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는 붉은 띠를 수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여하시는 혁명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고 솟구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조선혁명군 대원들은 백두산청년장군의 두리에 어깨성을 쌓고 신념의 맹세를 다지며 투쟁의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였다.

조선혁명군 결성!

그것은 오직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원대한 뜻을 품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조선혁명군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조직적인 무장투쟁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조선의 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총대로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에 용약 뛰여들게 되였다.

조선혁명군은 조직된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무장투쟁로선에 따라 여러 소조로 편성되여 각지에 파견되였다.

김형권동지를 비롯한 조선혁명군의 무장소조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악질적인 일제놈들과 그 주구들을 처단하고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행군로를 피로써 개척한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업적은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것이였다고, 조선인민혁명군은 이들의 영웅적투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그들이 흘린 성스러운 피의 대가로 이 세상에 상비적인 혁명무장력으로 태여나게 되였다고 감동깊이 회고하시였다.

그렇다.

조선혁명군 대원들의 눈부신 정치군사활동에 의하여 불과 2년도 못되는 기간에 반일인민유격대가 창건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토록 갈망하던 참다운 인민의 군대를 가지고 일본제국주의와의 항일대전을 벌릴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조선혁명군의 결성은 혁명적무장력의 기틀을 마련한 력사적장거였다.

이렇듯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총대중시의 위대한 사상이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할수 있었다.

총대를 앞세우고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백승만을 떨쳐온 선군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오늘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줄기차게 이어지고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선군으로 개척된 조선혁명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채 히 성

선렬들의 절절한 신념의 당부

우리는 지금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 서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항일선렬들의 용기백배한 저 모습에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혁명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은 투사들의 혁명적기상이 얼마나 세차게 맥박치고있는것인가.

수령앞에,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귀중한 청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고 신념의 인간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투사들, 그들은 오늘도 혁명의 령도자를 어떻게 모셔야 하며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값있고 보람있는 생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였습니다.》

항일의 선렬들, 그들은 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최고뇌수로 높이 받들어모신 혁명의 1세대들이였다.

혹심한 추위와 식량난을 겪을 때에도, 적들과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싸움을 벌릴 때에도 그들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부터 먼저 생각하였으며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수령님을 옹위하였다.

《지금 우리들의 작은 두어깨우에는 2천만 조선민족을 대신해서 조국의 운명이 떠받들려있소.

조국의 운명, 조선혁명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엄숙한 이 시각에 장군님을 보위하기 전에는 누구도 죽을 권리가 없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하오.》

오중흡동지가 대원들에게 한 이 당부는 곧 그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하기에 오중흡동지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령부의 안전부터 먼저 생각했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도 서슴없이 내댔던것이다.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은 력사에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행로였다.

어느날 부대가 장백현 7도구치기에 이르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들의 《토벌》력량이 주력부대에 집중되고있는데 대처하여 령활한 분산활동으로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것을 결심하시고 부대가 세개 방향에서 활동하도록 하시였다.

그때 오중흡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출발하는 경위중대장을 찾아 그의 손을 굳게 잡고 사령부의 안전을 부탁한다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그 어떤 간난신고도 용감히 뚫고나가자고 하면서 뼈가 부서져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 혁명의 사령부를 끝까지 보위하자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리고는 사령부로 가장하고 대오를 이끌어 사령부와 반대방향으로 행군해갔다.

적들이 몰려올수록 그는 나팔을 더욱 크게 불게 하여 적《토벌대》놈들의 추격이 자기 련대에 쏠리게 하였다.

배를 곯으면서도 사령부의 안전을 위해 부대의 행군로정을 일부러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험한 곳으로 택하였다. 적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힘겨운 행군길을 되돌아가서 된벼락을 안기고 다시 끌고다니기까지 하였다.

수령에 대한 자세와 립장은 곧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근본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곧 조선혁명이라는것이 항일선렬들의 가슴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신조였기에 오중흡동지뿐이 아닌 유명무명의 투사들이 생의 마지막순간에조차 온몸의 힘을 모아 《김일성장군 만세!》를 심장으로 웨치고 단두대에서도 굴하지 않고 《조선혁명 만세!》를 높이 부를수 있은것 아니였던가.

그처럼 간고한 혈전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간직하고있었기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구호를 심장에 쪼아박듯 한자한자 써넣은 투사들이였다.

항일의 피바다, 불바다만리를 헤쳐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최고뇌수로 받들어모시고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항일혁명선렬들,

그때로부터 어언 수십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였어도 이들이 남긴 신념의 당부는 세대를 이어, 년대를 이어 오늘도 메아리치고있다.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본사기자 백 영 미

문경고개에서 부르신 《사향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용사들의 영웅적위훈이 새겨진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문경고개,

오르면서 70리, 내리면서 70리, 령이 높고 길어 가벼운 안개도 오르다가 힘겨워서 중턱에서 잠들었다는 노래가사처럼 참으로 험한 령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자기것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긴 전쟁이였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습니다.》

주체39(1950)년 8월 어느날 수안보의 전선사령부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전연에 위치한 문경고개에 오르실 결심을 내리시였다.

전선사령부의 지휘관들은 그이의 앞을 무작정 막아나서며 그곳은 위험하다고 간절히 말씀올리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일제군경들이 욱실거리는 속에서도 못 다닌데가 없었는데 제 나라, 제땅에서야 무엇이 두려워 못 가겠는가고 하시면서 문경고개를 향하여 떠나시였다.

당시 문경고개는 적탄이 언제 날아올지 모를 격전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고개마루에 오르시여 전선형편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제기되는 작전전술적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정말 문경고개에 나와보기를 잘하였다고, 현지에 나와보니 결심이 더욱 확고해진다고 하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항일의 격전장을 헤쳐온 지휘관에게 고향과 부모형제들에 대하여 물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여기서 고향이 멀지 않으니 어머니가 더 보고싶을것이라고 마음속생각도 깊이 헤아려주시였다.

이윽토록 포연서린 최전선의 하늘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조국해방의 날을 그리며 《사향가》를 부르군 하였다고, 이제는 이 땅에서 미국놈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완전독립을 이룩할수 있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사향가》가 절로 떠오른다고 하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용히 《사향가》를 부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랑하는 고향을 지척에 두고있는 전사의 심정을 헤아려주시며 몸소 불러주시는 《사향가》, 항일의 격전장에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던 《사향가》가 전화의 포연서린 문경고개에서 또다시 숭엄히 울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신 《사향가》의 노래소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애국심을 심어주며 날강도 미제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의 메아리가 되여 포연서린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노래가 없는 생활, 노래를 떠난 청춘은 향기와 생기를 잃은 꽃과 같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청춘의 아름다운 생활에는 반드시 노래가 있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청춘시절은 인생의 꽃시절이라고 할수 있다.

앞날에 대한 크나큰 포부와 아름다운 꿈과 리상으로 충만된 시절,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감에 불타며 영웅적위훈창조에 대한 열망이 최대로 분출되는 시절이 바로 청춘시절이다. 이처럼 혈기왕성하고 열정적인 시절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피를 끓일줄 모르고 뚜렷한 생의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면 참다운 청춘이라고 말할수 없다.

인간생활에 노래가 없으면 그런 생활은 꽃이 없는 화단과 같은것처럼 노래를 떠난 청춘은 향기와 생기를 잃은 꽃과 같다.

혁명적인 노래는 사람들에게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풍부한 정서와 약동하는 생기를 안겨주는 사상정신적량식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혁명적인 노래는 없어서는 안될 투쟁과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라고 할수 있다. 수령의 사상과 의도가 집대성되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리상이 반영된 노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백배해주는 노래가 청년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한대이다.

노래소리 높은 곳에서 청춘의 힘과 열정이 용솟음치고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기마련이다. 이것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새겨주는 진리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은 《반일전가》, 《적기가》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죽어도 버리지 않을 혁명신념을 가다듬었고 결사의 의지로 모진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굴함없이 싸웠다. 가렬처절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를 비롯한 수많은 전시가요들은 공화국의 품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려온 온 나라 청년들의 심장에 원쑤격멸의 불을 지폈고 적의 화구도 서슴없이 가슴으로 막는 무비의 영웅성을 낳게 하였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세대들의 자서전의 갈피마다에 긍지높이 새겨져있는 청춘시절의 값높은 삶도 《우리는 천리마 타고 달린다》, 《청년사회주의건설자행진곡》과 같은 노래들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류례없이 엄혹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군대와 인민, 우리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수령결사옹위, 조국결사수호의 신념을 억세게 벼려준것이 바로 혁명적인 노래들이였다.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혁명군가들을 높이 부르며 우리 청년들은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로 더욱 억척같이 뭉치였고 선군청년전위의 영웅적기상을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구들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노래가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지금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하여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그리워질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불같은 충정을 맹세다질 때에도 노래를 부르고 밤새 질통을 지고 달리면서도 랑만과 희열에 넘쳐 노래를 합창하고있다. 고난과 시련앞에 나약해지지 않기 위해,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짓뭉개버리는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기개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그들은 노래와 함께 달리고 또 달리고있다. 청년들의 이런 열정넘친 투쟁과 더불어 흐르는 분과초가 그대로 기적과 위훈으로 이어지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은 우리 청년들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시절을 혁명적열정과 랑만에 넘쳐 값있게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지침이다.

청년들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모든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에 깃들어있는 참뜻을 깊이 새기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오늘의 총공격전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야 할것이다.

김 용 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쁘라야

까부 웨르드공화국 대통령

죠르쥬 까를로스 폰쎄까각하

나는 까부 웨르드 독립 및 공화국선포 4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독립후 지난 40년간 귀국에서는 나라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나는 이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호상리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7월 1일 평 양

끼갈리

르완다공화국 대통령

뽈 까가메각하

나는 귀국인민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르완다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경제적발전을 위한 귀국정부와 인민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7월 4일 평 양

농장에 어리여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강서구역 잠진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후방인민들을 불러일으킨 승리의 방아소리

오늘도 강원땅에 들어서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포화속에서도 거두어들인 낟알을 그날로 찧어 전선의 용사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애쓰던 속사리녀인들의 물방아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적의 탄우속을 뚫고 낮에 밤을 이어 탄약과 식량을 인민군용사들에게 날라다주었으며 하루에도 몇번씩 끊어진 수송로를 복구하고 부상병들을 후송한 속사리인민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힘을 바쳐야 하며 인민군대를 각 방면으로 적극 원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선원호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들이 속사리의 물방아간에 차넘치고 있었다. 먼산에서는 저녁노을이 불타던 시각이였다.

《수고합니다.》라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려퍼지는것과 동시에 물방아간녀인들의 환성이 터져올랐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타는 전선이 지척인 이 물방아간에 몸소 들리실줄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던가.

끝없는 감격과 행복의 이 순간이 믿어지지 않아 녀인들은 저마다 설레이는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슨 방아를 찧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햇벼를 찧어서 무얼 하자고 하는가고 하시며 녀인들을 바라보시였다.

고지에서 싸우고있는 인민군대에 보내주려고 한다는 녀인들의 이야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에서 쌀로 밥을 지어 자셔보았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녀인들은 옷고름만 매만졌다.

《…고지에서 군인들이 피흘리며 싸우고있는데 우리가 어찌 햇쌀에 손을 댈수 있겠습니까. 승리의 소식만 들으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그들의 소박한 대답에서 이 나라 녀인들만이 아닌 인민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신 우리 수령님,

그래도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햇쌀밥을 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실 때 다심한 친부모같으신 그이를 우러르는 녀인들은 뜨거운 눈물을 소리없이 흘리였다.

식량이 모자라지 않는가고 물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걱정어린 음성이 다시 물방아간에 울렸다.

좀 부족하지만 참고 견딜수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더 바랄게 없다고 누군가 목메인 소리로 대답올렸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대에 나간 자식들이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시였다.

더없이 미더운 눈길로 인민군대 후방가족들을 둘러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말 장하다고,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내고 오늘은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조이며 애쓰고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 녀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다고 신심을 안겨주시였다.

그이께서 들려주신 전선소식에 녀인들은 기쁨으로 설레였다.

그날 마을녀인들이 힘을 합쳐 물방아간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말 좋은 생각을 하였다고, 이런 물방아간을 도처에 만들어놓고 쌀을 찧으면 전선에서 요구하는 군량미를 제때에 보낼수 있다고 무척 대견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방아간을 떠나시였다. 그러나 속사리녀인들의 가슴속에서는 전선원호사업을 잘하기 바란다는 뜨거운 믿음을 안겨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따뜻한 음성이 끝없이 울리였다.

그 시각 전선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선원호사업에 자기들의 진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속사리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이 얼마나 강의한가고,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싸우고있는 속사리녀성들의 그 모습에서 나는 오늘 큰 힘을 얻었다고, 이런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쿵—덕, 쿵—덕 속사리의 물방아소리는 후방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승리방아소리로 이어졌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속사리의 물방아간을 찾으신 소식이 이 나라 녀인들의 마음들을 뜨겁게 하여주었기에.

본사기자 리 금 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마당질터》,

림성골혁명사적지를 돌아보던 우리는 이렇게 쓴 표식비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강사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은 적들앞에서는 백두산호랑이와도 같았지만 전사들과 인민들앞에서는 더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고산진에 계실 때 인민들과 담화도 하시였고 그들의 생활도 보살펴주시였다.

주체39(1950)년 1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농민네 집 수수마당질하는 곳에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집사람들에게 오늘같이 추운 날씨에는 수수마당질보다 콩마당질을 하는것이 더 좋다고 하시였다.

원래 콩깍지는 꽁꽁 얼어야 잘 튀기때문에 옛날부터 동지가 지나서야 콩마당질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농사군보다 농사일에 더 밝으셨고 그만큼 농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계시였다.

현물세를 먼저 바치려고 수수마당을 펴놓았다는 주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리깨질하는 그 집 아들로부터 도리깨를 넘겨받으시고 농민들과 어울려서 한참동안이나 도리깨질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맞은편 강냉이밭을 가리키시며 저기 쌓아놓은것이 강냉이가 아닌가, 이삭이 그냥 달려있다고 하시더니 농촌로력사정에 대하여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인민군대가 탈곡을 도와주도록 해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전쟁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농민들과 함께 도리깨질을 하시며 살림살이를 의논해주시는것이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어길수 없는 좌우명이였고 확고한 신조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전쟁시기에 최고사령관이 농민들과 함께 도리깨질을 한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고있는것인가.

그때의 이야기는 오늘도 위대한 사랑의 전설로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혁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여갈 신념과 의지

승리와 영광의 기치 높이 들고 힘차게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휘날릴것이며 언제나 우리를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추동할것입니다.》

누가 말했던가. 시간에도 자기의 언어가 있다고.

옳다.

21년전 비분의 7월로부터 오늘에로 흘러온 시간은 뚜렷한 목격자, 증언자가 되여 격조높이 말하고 소리높이 웨치고 있다.

이 땅우에 민족의 대국상은 있었어도 언제 비애의 력사가 흐른적이 있었던가를, 존함그대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시간의 한계를 넘어 어떻게 영생하시는가를…

사무치는 그리움에 겨운 우리의 발걸음 저절로 옮겨지는 곳이 있다.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된 김일성광장이다.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하는 열병대오의 맨 선두에 조선로동당기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기, 군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휘날리던 불멸의 태양기!

바로 여기에 주체의 태양기와 더불어 수령영생의 위대한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선군조선의 억센 신념과 의지가 있고 태양민족의 하늘보다 높은 긍지가 있다.

지구상에 형형색색의 기치들은 많다. 그러나 태양기는 없다. 오직 우리 인민만이 추켜든 유일무이한 기치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수십년동안 휘날리던 혁명의 붉은 기발들이 하루아침에 내리워지는 비극적사태가 일어났지만 우리 조국에서 선대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일 철의 신념과 의지가 충만된 불멸의 태양기가 힘차게 나붓기고있는것은 얼마나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가.

어버이수령님의 서거를 기화로 우리의 그 무슨 《변화》를 꿈꾸고 《붕괴설》을 요란하게 떠벌이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자기들이 그동안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워보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망상을 하였는가를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진보적인류는 멈춰섰던 지구의 자전을 다시 돌린것과도 같은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대한 업적을 두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태양기는 바란다고 하여 어느 민족, 어느 인민이나 추켜들수 있는것이 아니다. 대를 이어 태양복을 누리는 민족과 인민만이 들수 있다.

추억을 더듬느라면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보낸 날과 달들, 년대들마다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찍어가신 강행군자욱자욱들이 눈물겹게 어려온다.

오성산과 판문점, 초도, 강계와 성강…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절절히 부르시며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그 자욱자욱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숨결이 이 땅우에 변함없이 더욱 거세차게 흐르게 하실 철의 신념과 의지로 충만된 더없이 순결무구한 도덕의리와 지극한 충정의 결정체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열린 경제부문책임일군협의회에서 확언하시였다.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인민들속에서 살아왔다고, 자신께서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것이라고.

우리 인민과 세계는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력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수령님의 력사가 더욱 줄기차게 흐르는 현실을 통해 수령님의 그날의 확언이 어떻게 현실로 전환되고있는가를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사상과 령도, 덕망에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주체의 태양기는 백승의 제일기치로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하늘가에 더욱 세차게 나붓기고있다.

21세기 세계정치무대를 쩡쩡 울리시며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꿋꿋이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가장 가까운 곳에는 언제나 주체의 태양기가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리는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헤아리시여 조국땅 방방곡곡에 모시도록 하신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들과 모자이크벽화들, 온 나라에 거세차게 지펴주신 유훈관철의 불길, 전당에 꽉 차넘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기풍…

그 위대한 손길에 떠받들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나게 되였으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이 굳건히 다져지게 되였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위용이 만천하에 떨쳐지게 되였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현동지가 적구활동에서 큰 공을 세운 인민군분대장에게 해방직후부터 간수하고 다니던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사진을 수여하면서 한 말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이건 훈장보다 더 쎈 표창이야. …이 사진을 간수하고 다니면 총알이 네 심장을 뚫지 못해.》

그렇다.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추켜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불멸의 태양기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축복해주며 더욱 힘있게 나붓길것이다.

주체의 태양기 휘날리며 힘차게 앞으로!

이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의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경축광장에 떳떳이 들어서며 최후승리의 그날에로 힘차게 달려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리정수

한없는 그리움, 불같은 실천

우리 삶의 전부

아직은 어둠이 완전히 가셔지지 않은 이른새벽,

여러 작업반들을 돌아보고 어버이수령님 다녀가신 제1작업반 포전에 이른 평원군 원화리 당일군앞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어느새 나왔는지 작업반원들이 김매기를 퍼그나 해제낀것이다.

작업반장의 절절한 목소리는 또 얼마나 뜨거운것인가.

《7월 8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수십년전 이른새벽처럼 우리 수령님 불쑥이 포전을 찾아주실것만 같아서…》

7월의 이 새벽 약속이나 한듯 영광의 포전에 달려나온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준것은 무엇인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였다.

몸소 명예농장원이 되시여 농장살림살이를 살뜰히 돌보아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

서거하시기 꼭 한달전에는 자신의 저금통장에 올라있던 분배몫으로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마련해 보내주시였으니 참으로 원화리의 발전력사야말로 우리 수령님의 헌신의 력사, 사랑의 력사이다.

정을 주고 사랑을 준 어버이를 그리워하는것이 인간고유의 본능일진대 원화리사람들의 경우에야 더 말해 무엇하랴.

열, 백, 천명을 한모습으로 만든 그리움,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진실하며 열렬한 심장의 분출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수령에 대한 그리움은 태양민족의 삶의 전부이다.

《결사전가》와 《신고산타령》

얼마전 물전해직장에 들어서던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지금쯤 치료를 받고있으리라 생각했던 직장장이 현장을 분주히 오가며 생산지휘를 하고있었던것이다.

왜 벌써 나왔는가고 걱정하는 일군에게 직장장은 대답하였다.

《어쩐지 죄스러운 생각이 자꾸만 들더란 말입니다. 해방후 겨울날로부터 시작하여 수십차례나 우리 흥남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저를 지켜보시는것 같아서 말입니다. 올해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무대에 우리 기업소예술소조원들이 〈신고산타령〉을 올렸는데 결사전을 벌려야 온 나라에 더 높이 울려퍼질게 아닙니까.》

일군의 가슴은 쩌릿해졌다. 평양무대를 들썩하게 한 《신고산타령》의 구절구절이 되새겨졌다.

…

온다야 온다길래 동구밖
　큰길에 나갔더니
자동차에 가득가득 흥남비
　료가 오누나
…

날에날마다 결사전이 벌어졌다.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유훈관철에 떨쳐나선 흥남로동계급은 《결사전가》를 부르며 전투를 벌렸다. 그들의 비상한 정신력이 폭발하는 가운데 하루 비료생산량은 지난시기에 비하여 200t이나 더 높아졌다.

온 나라에 《신고산타령》을 불러오는 《결사전가》!

바로 이것이 흥남로동계급의 삶과 투쟁의 주제가가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김향란

수필 회고록의 갈피를 번지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불멸의 가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얼마전 은률광산 청년광구에서 만났던 초급당일군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수 있었다.

《주옥같은 명언들로 혁명의 원리와 투쟁방법, 방도는 물론 생활의 진리를 환히 밝혀주고 있는 우리 수령님의 회고록을 학습할 때마다 나는 마치 하나의 종합대학 과정안을 거치는듯 한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이군 합니다.》

회고록학습과 종합대학 과정안!

얼마나 깊은 의미를 새겨주는 말인가.

나에게는 사연깊은 추억들로 가득찬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의 갈피갈피가 새삼스럽게 안겨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부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입니다.》

돌이켜보면 력사에는 위인들도 많았고 이름난 정치가들도 있었다.

그들속에는 자기의 인생체험을 나름대로 서술한 자서전이나 회상록을 써낸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력사에 이름을 남긴 그 어느 위인들의 회고록이나 전기도 우리 수령님의 회고록처럼 그토록 거대한 진리성과 생활력으로 만민의 심장을 완전히 틀어잡은적은 동서고금에 없었다.

그것은 그 모든 저서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전개된 글들이고 어디까지나 자기의 흔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쓴 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의 회고록을 펼쳐보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자신의 한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것이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였다. 다만 자신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생이였다는것으로 최대의 만족을 느끼시였다.

이러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기에 회고록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국과 혁명이 있었고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이 있었다.

적들의 악랄한 추적으로 위험한 순간들을 겪으신적도 많지만 자신께서 겪으셨던 고난과 시련에 찬 피어린 자욱보다도 다왜즈의 조택주로인일가, 잊을수 없는 교하의 아주머니를 비롯한 인민들에 대해 귀중한 추억을 남기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우리 가정》, 《타향에서 타향으로》, 《타도제국주의동맹》,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새 무장력의 탄생》, 《동녕현성전투》, 《녕안땅에 울린 하모니카소리》, 《천교령의 눈보라》 등 수령님의 회고록의 갈피마다에는 오직 조국과 인민, 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추억과 사랑, 혁명투쟁의 심오한 원리와 방법들로 꽉 차있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 아니 진보적인류는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이야말로 사상리론의 진리성과 심오성에 있어서 또 그 내용의 풍부성과 다방면성, 력사적사실자료들의 생동성에 있어서 그 어느 위인의 저작에도 비길수 없는 혁명의 대백과전서이며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라고 격찬을 아끼지 않는것이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전세계인류의 가슴마다에 참된 삶과 투쟁의 진리를 새겨주고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이고 대백과전서이며 최후승리의 기발이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회고록의 갈피를 번질 때마다 저 멀리 지나온 추억만이 아니라 혁명승리의 래일을 보게 되는것이 아니랴.

본사기자 채인철

그리움의 7월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현지지도단위들이 수령님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특히 현지지도단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대고조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달려나감으로써 자기 단위에 깃들어있는 수령님과 당의 령도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총공격전의 전렬에 우리가 서자

어버이수령님의 현지지도단위 당조직들에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황철의 로동계급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겨주신 과업을 결사관철한 전세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짜고들고있다. 이에 고무된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산소열법용광로개건보수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위대한 수령님들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5월17일공장 정문앞에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언제나 변함없이 강철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온것처럼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성강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줄것을 맹세하는 충정의 결의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한편 1강철직장의 생산현장에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판들을 전개하고 련합기업소적인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는 등 오늘의 투쟁에서 성강의 로동계급이 선봉투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후방부문 전투원들의 열의를 높여주는 사업도 참신하게 짜고들어 지난 4월에 완공한 7000㎡의 버섯기지에서 덕을 보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서 련일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은 수산부문의 현지지도단위 당조직들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김책수산사업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는 한편 혁명사적교양실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과 함께 단위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실천활동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위력한 정치사업과정으로 되도록 하고있다. 이 과정에 수산물생산전투에서도 혁신이 일어나 상반년도 다시마생산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당조직들에서도 김매기를 비롯한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함흥모방직공장, 평양곡산공장의 당조직들에서도 경제선동활동을 통하여 공장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주어 생산자대중의 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총공격전의 전렬에 우리가 서자!

이것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현지지도단위 당조직들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목표설정도 실현방식도 인민군대식으로

희천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지난 6월 19일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쉰한돐을 뜻깊게 경축하는 희천은하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당보에 실렸던것이다.

보람찬 투쟁과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온 나날을 돌이켜보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를 대표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치게 하는 위대한 혁명정신입니다.》

공장초급당위원회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사업에서 틀어쥔 중심고리는 두가지라고 말할수 있다. 하나는 결의목표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이 세운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군인정신, 군인본때로 힘있게 벌린것이다.

먼저 결의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였는가를 보자.

공장이 3대혁명붉은기의 영예를 지닌것은 6년전 4월이였다. 이때부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였다. 원인은 결의목표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선군시대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있었다. 생산능력확장공사를 자재와 로력이 일정하게 준비된 조건에서 진행하기로 한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초급당위원회가 결의목표를 대담하게 갱신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것이 두해전 3월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경공업대회였다.

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지배인 장이영 희동무는 초급당비서 리광남동무에게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글쎄 우리 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여 강령적인 가르치심까지 주실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경공업전선은 현시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화력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방향이라고 하시던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지금도 가슴을 울려주고있습니다.》

그러면서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인민군대식으로 높이 세우자,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벌리던 나날에 병사들의 일당백공격정신, 단숨에의 정신이 어떤것인지 폐부로 절감한 우리들이 아닌가 하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초급당비서는 지배인의 제기를 적극 지지하였다.

그들은 종업원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결론의 진수를 깊이 해설하면서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결의목표를 높이 세우고 투쟁하자는 일군들의 호소는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이렇게 되여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가 다시 세워지게 되였다. 갱신된 결의목표에는 현행생산을 계획대로 내밀면서 3층짜리 덩지큰 생산건물을 한해동안에 새로 일떠세울데 대한 문제, 당창건 70돐까지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데 대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였다.

이것은 매우 아름찬 목표였다. 하지만 전국경공업대회를 계기로 앙양된 대중의 정신상태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이악하게 투쟁한다면 능히 실현할수 있는 목표였다.

대중운동을 벌려나가는데서 결의목표를 잘 세우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의목표를 주관적욕망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높이 세워도 안되며 너무 낮게 세워도 안된다. 당의 의도와 대중의 정신상태를 잘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워야 대중운동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희천은하피복공장이 짧은 기간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할수 있은 비결의 하나가 이렇게 초급당위원회가 결의목표를 인민군대식으로 대담하게 갱신한데 있다.

다음으로 결의목표실현과정을 보자.

결의목표를 잘 세우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더 중요하다.

초급당위원회가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중시한것은 투쟁방식을 인민군대식으로 전환시킨것이다.

현행생산을 계획대로 내밀면서 3층짜리 생산건물을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우던 투쟁과정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가장 긴장한 문제가 로력이 부족한것이였다. 공장종업원의 대부분이 녀성들이고 그들이 현행생산을 내밀어야 하는 조건에서 로력이라야 10여명의 관리, 봉사성원들이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바로 그 로력으로 돌격대를 조직하여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면서 블로크생산, 층막공사 등 긴장한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모든 종업원들을 총동원하도록 작전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일군들이 공사의 앞장에 섰다. 지배인은 공사 전기간 현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면서 전투를 지휘하였고 초급당비서는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당시는 마식령지구에서 세상을 놀래우며 스키장이 일떠서던 때였다.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를 심장깊이 새겨안은 인민군군인들은 백두산혁명강군의 기개를 떨치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고 있었다.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공사를 밀고나가는 일당백병사들의 투쟁기풍을 거울로 삼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낮에 밤을 이어가며 전투를 벌리였다.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우기 위해 지배인은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화강석을 해결하기 위해 고열속에 앓으면서도 멀리 룡강으로 출장길을 떠나는 지배인을 눈물속에 바래우던 때를 돌격대원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높이 세운 목표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감동된 상급기관의 일군들이 새 지붕재를 가지고 찾아와 그들을 고무하였다.

결사관철을 생명으로 하는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은 공장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을 낳았다. 보기에도 좋고 일하기에도 편리하게 꾸려진 새 건물을 돌아본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한다. 화강석이 깔린 복도를 환하게 비치는 무리등들이며 천정선풍기와 제습기, 액정텔레비죤, 증폭기 등이 설치된 일터는 로동자들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여준다. 시원하면서도 깨끗하게 꾸려진 문화선전실과 과학기술보급실 등은 더욱 아름다울 래일에 대한 종업원들의 지향이 얼마나 뜨거운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인민군대식으로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던 나날에 기술혁명수행에서도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빛수감에 의한 맞단추계수기, 천풀기장치를 비롯한 30여건의 기술혁신안이 도입됨으로써 생산능률은 1.6배로, 제품생산량은 3배로 높아지게 되였다.

공장이 당창건 70돐을 앞두고 2중3대혁명붉은기의 영예를 지닌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바로 초급당위원회가 결의목표수행을 위한 투쟁도 인민군대식으로 통이 크게 전개해나간데 있다.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던 나날을 긍지높이 돌이켜볼수록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것이 있었다. 조건이 아무리 어렵고 과업이 방대하다 해도 인민군대의 혁명정신과 투쟁본때로 일할 때 반드시 기적이 창조된다는 진리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벌려나갈 일념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승표

뜨거운 향토애를 지니고

담배련합기업소 화강담배농장 제4작업반에서

몇해전부터 담배련합기업소 화강담배농장 제4작업반은 농장적으로 앞선 단위로 손꼽히고 있다.

생산에서나 작업반꾸리기는 물론 양어와 축산, 온실남새생산 등 모든 면에서 앞서나가고있는 작업반은 두해전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성과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작업반원들은 대답해주군 한다.

뜨거운 향토애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참된 삶의 가치는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 당과 혁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 있습니다.》

화강담배농장 제4작업반은 강동군 읍으로부터 수십리, 리소재지에서도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있다. 교통이 불리하고 땅은 척박한데다 물마저 바른것으로 하여 작업반의 토대를 꾸리는데서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았다.

이곳에서 작업반장으로 사업하게 된 제대군관 홍천국동무는 군사복무시절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고향땅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선경으로 꾸려갈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그는 앞장에서 산골짜기와 산비탈에 널려있는 밭들에서 돌들을 춰내고 똑을 쌓으며 옥토로 걸구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그는 탈곡장울타리, 분조창고들을 비롯하여 작업반꾸리기는 물론 양어장, 태양열온실건설도 힘있게 내밀었다. 일부 반원들이 세멘트가 없소, 무엇이 결렸소 할 때에도 지방자재를 리용할 대담한 안을 내놓았다. 작업반원들이 신심을 가지고 작업반장을 따라나섰다.

쉴참에 그는 군사복무의 나날에 익힌 흥겨운 춤가락과 전투적인 노래선창으로 반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작업반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산비탈을 깎아내고 분조창고들을 새로 일떠세웠으며 지방자재를 리용하여 탈곡장과 주변울타리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 마을어구에는 양어못을 만들고 해마다 수천마리의 물고기를 기르는것과 함께 산골의 특성에 맞게 염소방목도 근기있게 내밀어 작업반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나갔다. 작업반원들은 늘 앞채를 메고 뛰고 또 뛰는 작업반장에게 정이 들었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는것없이 성실하게 관철해가는 그의 정신세계와 일본새를 그대로 닮게 되였다.

작업반원들은 이런 홍천국동무를 가리켜 우리 제대군관작업반장, 고향땅의 진짜배기주인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오늘도 제4작업반원들은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해 성실한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는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사회주의선경

천지개벽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돌아보고

《빈봉투농장》으로부터 세상에 없는 농장도시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 문명개화된 농장도시로 희한하게 변모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얼마전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남새온실과 공공건물, 살림집준공식이 진행된 장천땅이 지금 격정의 도가니가 되여 세차게 끓어번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빈봉투에 깃든 눈물겨운 사연과 함께 장천땅에는 인민을 위해 험한 포전길, 농장길을 앞장에서 걷고 또 걸으시며 친어버이사랑으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어려있다.

어느해인가 한겨울의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장천땅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분배때 빈봉투를 받았다는 처녀농장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벽에 등을 기대신채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그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처녀농장원의 이야기를 수첩에 하나하나 적으시고는 자신께서 장천을 책임지겠다고, 올해에는 이 농장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야 하겠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뒤떨어진 이곳 농장을 잘사는 농장으로 꾸려주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저택의 시험포전에서 가꾸어보신 배추에 대한 자료도 보내주시였으며 어느해 4월에는 무더위로 숨막히는 온실에 오래도록 계시며 남새생산을 늘일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또다시 장천땅을 찾으시고 래년 가을에 다시 오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신 우리 수령님,

친어버이의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장천땅을 여러차례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사를 잘 지어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해야 한다고 이곳 농장원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있던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전국의 본보기로 꾸려주시려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는 또 얼마나 크나큰것인가.

감격도 새로운 지난해 6월 몸소 장천땅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이곳 농장을 온실남새생산의 전형단위, 온 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잘 꾸릴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선군혁명령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장천지구건설형성안을 여러차례나 지도해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으며 힘이 진할세라, 주저앉을세라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에 대하여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절세위인들의 이런 크나큰 사랑과 은정속에 오늘 장천땅은 사회주의농촌문화의 본보기, 기준으로 변모되였다.

《빈봉투농장》으로부터 세상에 없는 농장도시로!

여기에 영광의 땅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천지개벽의 력사가 함축되여있다.

장천땅에 수놓아진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대를 이어 전해갈 충정의 일념안고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볼수록 희한한 사회주의선경, 누구나 부러워하는 농장도시를 장천땅에 펼쳐놓았다.

그 어디에 들려보아도 절로 경탄이 터져나온다.

종합적인 봉사기지인 장천원만 보아도 시내의 창광원 못지않다.

설계와 시공을 특색있게 잘한 2층짜리 건물에는 목욕, 리발, 미용, 옷수리, 신발수리, 사진, 청량음료 등 편의봉사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어느 하나 빠진것없이 갖추어져있으며 벼랑타기시설이 있는 내정물놀이장까지 꾸려져있다.

모든 요소가 흠잡을데 없이 멋쟁이로 꾸려진 장천원에서 평범한 농장원들이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중앙의 예술극장 못지 않게 꾸려진 문화회관에서는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 문명한 생활을 누려가는 농장원들의 행복넘친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그네타기와 씨름, 널뛰기를 할수 있게 꾸려진 민속놀이장이며 수영장, 로라스케트장, 배구장에서는 밝고 활기에 넘친 농장원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오늘의 장천땅을 찾으면 누구나 우리 당이 바라는 사회주의농촌문화의 본보기가 어떤것인가를 똑바로 알게 된다.

현대적인 콤퓨터들과 여러가지 분석설비들을 그쯘히 갖춘 과학기술보급실이며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생태환경온실들로 변모된 수백동의 온실들에서는 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내 조국의 억센 기상을 엿볼수 있다.

모든 세대마다 태양열물가열기, 태양빛전지판이 설치되여있고 필요한 가구비품들과 부엌세간들이 빠진것 없이 그쯘하게 갖추어진 현대적인 단층, 소층 농촌문화주택들에서는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지고있다.

저녁이면 문화주택구내길의 태양빛전지가로등이 환한 불빛으로 장천지구의 밤을 아름답게 장식하여 농장원들모두가 도시 부럽지 않은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들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려졌다.

하기에 장천땅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별천지가 펼쳐졌다고 하시면서 볼수록 멋있는 농장도시, 도시사람들도 부러워할 희한한 농장도시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농장도시! 로동당시대에 태여난 또 하나의 시대어와 함께 얼마전 장천땅에는 한날한시에 수백명의 농장원들이 새집들이를 하는 경사가 펼쳐졌다.

오늘은 오실가, 래일은 오실가 꿈결에도 그리고그리며 영광의 이날을 기다려온 수도시민들과 장천사람들이 너무나 뜻밖에, 너무나 분에 넘치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축복속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했으니 가슴속에 차넘치는 뜨거운 격정, 고마움의 인사를 과연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격정에 젖은 이 목소리는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한 장천지구 농촌문화주택들의 창가마다에서 끝없이 울려나와 당중앙창가에로 메아리쳐갔다.

크나큰 기쁨과 감격에 넘쳐 고마움의 눈물만을 흘리는 장천사람들이 아니다.

그 어느 가정에 들리여도, 그 누구를 만나보아도 보답의 열망, 맹세의 열기로 달아오른 한목소리이다.

—농촌문화혁명의 본보기, 기준답게 남새비배관리에서도 전국의 본보기가 되리라.

—온 나라 농촌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는 본보기, 불씨가 되리라.

장천땅의 하늘가에 메아리치는 행복의 웃음소리, 불타는 보답의 맹세!

진정 그것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이 땅우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장천사람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 뜨거운 충정의 마음의 분출이다.

모두가 남새박사, 농학박사로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장천지구에 들어서면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만세!》의 구호를 정면에 내붙인 2층짜리 건물이 류달리 눈에 뜨인다. 그 건물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찾아주신 과학기술보급실 청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멋들어지게 일떠선 과학기술보급실 청사의 홀에 들어서니 몸소 장천땅을 찾고 또 찾아주시며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안겨주시려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모셔진 사진문헌이 우렷이 안겨와 우리의 마음은 저도모르게 젖어든다.

우리와 만난 문광혁동무는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받들어 과학기술보급실이 새로 꾸려진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습득하려는 농장원들의 열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과학기술보급실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처음 들린 토양분석실에서는 분석공 곽용일동무가 매 온실호동의 토양분석을 하고있었다.

현재 60여개 호동의 토양분석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모든 분석자료들은 구내망을 통해 종합지령실에 집계되고 그에 따르는 해당한 대책들이 세워지고있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필지별토양분석에 대한 일군들과 온실재배공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고, 그래서 분석공들모두가 모든 남새온실호동들에 대한 과학적인 토양분석을 끝내기 위해 분발하고있다고 덧붙이였다.

병해충검정실, 도서열람실을 거쳐 우리가 들린 곳은 수십대의 콤퓨터를 갖춘 전자열람실이였다.

문광혁동무는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의 원격교육을 받는 농장원들이 39명이라고, 그들모두가 남새학을 전공하고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이제 머지않아 모든 농장원들이 대학생이 되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질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남새박사, 농학박사가 될 일념안고 우리 과학기술보급실을 즐겨찾군 합니다.》

남새박사, 농학박사.

가슴속에 품은 그 소중한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꽃피울 불타는 일념안고 탐구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는 농장원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수 있었다.

하루일이 끝나면 이곳 과학기술보급실에 찾아와 앞선 과학적영농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피타는 탐구로 밤을 밝히는 기계화작업반 기술원 리금철, 남새제6작업반 농장원 리현옥동무들…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돌진해가는 이들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날 장천땅의 래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것인가.

온실남새농사의 과학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교육과학연구단위 교원,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남새온실들에 통합조종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온실남새생산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다.

남새온실들에서는 남새, 축산, 양어로 이어진 고리형순환생산체계와 메탄가스생산체계 도입, 꿀벌에 의한 자연수정과 벌집형축열효과리용 그리고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 등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재배공들이 콤퓨터를 통해 남새재배에 필요한 온습도를 조절하고 남새재배를 과학적으로 하고있다.

이와 함께 영양액에 의한 수경재배를 도입한 온실과 태양열물가열기와 나노물분해기를 설치하여 나노수에 의한 남새재배를 진행하는 온실들도 있다.

시의 일군들과 농장의 일군들, 기술자들은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도입할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모든 남새온실에 방울식관수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미생물복합영양액생산기지도 훌륭히 꾸려놓았다.

그 어느 호동을 돌아보아도 호미나 삽이 아니라 콤퓨터로 남새농사를 과학적으로 하고있는 재배공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가 아니라 ㎥로

장천지구의 온실들에서는 1 530여개의 나무함과 700여개의 수경판, 4만여개의 수지바구니, 1 070여개의 말뚝재배를 위한 기둥판들을 설치하고 부루, 진채, 쑥갓, 유채와 산나물까지 집약적으로, 립체적으로 생산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반궁륭식온실호동에 단식재배를 도입하여 남새생산의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다그치고있다.

농장에서는 남새온실들사이를 비롯하여 공지들에 푸초, 고추, 가지를 비롯한 남새들을 심어 재배면적을 최대로 늘이고있다.

또한 물도랑을 따라 호박굴, 수박굴을 조성하였으며 반궁륭식온실벽체뒤면에도 계단식으로 단을 만들어 푸초를 비롯한 여러가지 남새들을 재배하고있다.

또한 일부 온실들에서는 온실공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남새뿐아니라 고기와 알, 물고기도 동시에 생산하고있다.

농장에서는 남새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우량품종, 다수확품종의 남새들을 널리 재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이 보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다른 단위들에 일반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아름다운 농촌을 형상한 하나의 대형 전경화를 보는것 같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말그대로 별천지를 이룬 장천땅,

하나의 도시구획을 방불케 하는 장천지구의 현대적인 온실과 공공건물, 농촌문화주택들은 내용과 형식에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이 꾸려졌다.

태양열물가열기와 태양빛전지판이 설치된 단층, 소층 농촌문화주택들, 온도와 습도, 해비침도, 이산화탄소함유량을 감시하는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가 설치된 수백동의 희한한 남새온실들, 중앙의 예술극장 못지 않게 꾸려진 문화회관, 편의봉사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어느 하나 빠진것 없으며 요소요소가 흠잡을데 없이 꾸려진 장천원…

배구장과 수영장, 로라스케트장, 양어장까지 있는 공원을 찾으면 마치 유원지에 들어선듯 싶다.

그뿐이 아니다. 도서실, 전자열람실, 기술학습실, 토양분석실, 병해충검정실 등이 잘 꾸려진 농장의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 농업과학원 등과 련계를 맺고 필요한 과학기술자료들을 검색, 열람할수 있으며 그 어떤 분석도 높은 수준에서 할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아담하고 깨끗한 리인민병원이며 탁아소, 유치원, 고급중학교 등에도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어 농장원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말그대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모든 면에서 농촌문화혁명의 본보기, 기준이다.

장천땅의 천지개벽은 이 땅우에 하루빨리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과 당이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며 떨쳐나서는 우리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본보기, 불씨로 하여 온 나라 농촌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수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우리의 승리라는 철석의 신념과 배짱을 안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짧은 기간에 장천지구의 본래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선경을 창조하였다.

령도자와 뜻도 마음도 숨결도 하나가 된 대중의 비상한 정신력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변시켰고 누구나 리상속에 그려보던 사회주의선경을 장천땅에 자랑찬 현실로 펼쳐놓았다.

천지개벽된 장천땅의 빛나는 현실은 기적창조의 열쇠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선 대중의 정신력에 있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금 희한하게 전변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는 당책임일군들을 비롯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바라는 사회주의농촌문화의 본보기가 어떤것인가를 실물로 보았다고 하면서 강성국가건설의 보람찬 투쟁에서 더 높은 비약과 혁신을 창조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하나의 불씨가 료원의 불길처럼 온 나라 농촌들에 퍼져가고있다.

건설의 대번영기를 자랑하는 사회주의건설장들, 최첨단돌파전으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탐구의 열풍으로 끓어번지는 과학지구,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는 수산부문을 비롯한 강성국가건설의 격전장들과 더불어 온 나라 농촌이 문명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비약의 보폭을 힘있게 내짚고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이 우리의 눈앞에 보인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본사기자 김호혁
본사기자 신충혁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회관의 내부

장천원의 내정물놀이장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로라스케트장

사랑의 왕차와 인민이 드리는 감사의 큰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후대들인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옳게 교양하는것은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얼마전 옥류아동병원을 찾았던 우리의 놀라움은 컸다.

시안의 탁아소, 유치원,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이곳 병원에도 사랑의 왕차가 매일같이 달려오고 수백명의 나어린 입원환자들 모두가 날마다 맛있는 콩우유를 마시며 치료를 받고있다는 사실은 들을수록 감동적이였다.

중구역 교구동에서 사는 배은경녀성은 갖가지 영양식품이 보장되고있을뿐아니라 치료조건과 교육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한것이 있으랴만 이렇듯 거듭 위해주는 당의 은정에 눈물을 금할수 없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하여 우리는 시안의 아이들에 대한 콩우유공급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평양시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관리소에로의 취재길을 떠났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관리소 과장 윤성애동무는 관리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수십년동안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이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일찌기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의 성장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관리소는 1960년대에 창립된 이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왔다.

조국땅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1990년대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안의 학령전 어린이들과 소학교, 중학교학생들에게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먹이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주시였다.

그때부터 《콩우유》라는 글자를 큼직하게 새긴 사랑의 왕차들이 달림길제한구역에 관계없이 시안의 곳곳으로 아이들을 찾아 줄지어 달리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였다.

1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시안의 콩우유공급략도와 콩우유운반차 등을 보아주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시기에도 하루도 중단없이 콩우유를 보장해온 어느 한 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사랑이 누구에게라없이 가닿도록 하기 위해 이곳 관리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콩우유공급단위 아이들의 류동정형을 조사장악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인수원들은 담당단위들에 나가 콩우유를 공급하는 한편 누가 언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였는가에 대해 료해하고 그에 대한 정형을 수시로 통보하는것을 정상화하여왔다.

콩우유차가 수도의 한복판을 처음으로 달렸던 수십년전 감격에 목메여 눈물을 삼키면서 콩우유를 마시던 세대들이 오늘은 어엿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이제는 그들의 자식들이 사랑의 콩우유를 마시며 무럭무럭 자라고있다.

그만큼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하지만 자기의 자식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로 그날 아이들의 류동과 관련한 자료가 학교와 보건기관을 통해 평양시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관리소의 해당 과에까지 통보되고있는데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못하다.

우리 인민이 모르고 받는 또 하나의 혜택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알게 된 우리의 눈굽은 저도 모르게 젖어들었다.

과장은 현재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생산한 콩우유가 탁아소, 유치원, 학교를 비롯한 시안의 수백개 단위의 수십만명 아이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중 수십개 단위에 달하는 시안의 중앙병원들과 시, 구역인민병원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있는 나어린 환자들도 매일같이 콩우유를 공급받고있다고 말하였다.

과장은 이어 최근 대동강구역인민병원에 입원한 여러명의 아이들을 위해 사랑의 왕차가 달리고있는데 대해서도 잊지 않고 우리에게 말해주었다.

수백개 단위의 수십만명 아이들에 비해볼 때 수십개 단위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수는 너무도 적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수자속에서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찾아가는 콩우유차의 경적소리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후대사랑의 세계를 후덥게 되새기였다.

자료에 의하면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기름질은 동물성단백질이나 기름질에 비해 인체의 생리적기능을 훨씬 높인다고 한다.

의학과학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소장인 박사 부교수 오석철동무는 언젠가 우리에게 아이들이 매일 한고뿌의 콩우유를 정상적으로 먹으면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날뿐아니라 지능이 더 발달된다고 하였다.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하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콩확보로부터 우유생산과 그 운반에 이르기까지 당과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나라는 없다. 더우기 불과 며칠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콩우유차가 전용으로 달린다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거리를 지나다 문득 우리의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사랑의 왕차가 눈에 보이면 발걸음 멈추고 마음속으로 고마운 어머니당에 감사의 큰절을 삼가 드리는것이 이 나라 인민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그 무한한 사랑의 세계에 받들려 마음도 키도 날마다 자라 우리의 새 세대들이 조국보위의 초소에 서는 그날에 틀어쥘 총대는 무적의 총대로 더욱 서리발칠것이며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울려갈 동음은 창조의 우렁찬 메아리로 더욱 힘차게 울려퍼지리라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절로 벅차올랐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 평양시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관리소를 나서는 우리의 귀전에는 콩우유 나누며 자란 그 시절 백발이 되여도 잊지 못하리라는 《사랑의 왕차》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본사기자 방경찬

토산군 시변고급중학교에서

변함없는 충정의 마음안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지는 7월이다. 이 시각 남다른 사연을 안고있는 토산군 시변고급중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은 변함없는 충정의 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온갖 지성과 정열을 다 바쳐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며 수령님과 장군님을 태양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는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주체38(1949)년 9월 21일 토산군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병세가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지만 마지막까지 현지지도일정을 마치신 다음에야 평양으로 떠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교와 관련한 뜻깊은 교시도 남기시였다.

그날의 눈물겨운 사연을 어느 한시도 잊어본적 없는 학교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다.

하기에 이들은 해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과 주작봉마루를 찾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교장 고순애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금수산태양궁전과 주작봉마루를 찾는 과정이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시키고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기 위해 이 사업에 많은 품을 들이였다.

교직원들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준비사업부터 알심있게 진행하였다. 아름다운 꽃모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마련하기 위해 때식을 건느면서 수백리길을 걸을 때도 있었으며 지원물자 하나를 마련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준비하기 위해 며칠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였다. 그 나날은 그대로 해가 갈수록 더해만 가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워온 나날이였고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였으며 절세위인들의 고매한 풍모와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는 계기였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마련한 아름다운 꽃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 도라지뿌리 등과 물자들을 안고 해마다 여러차례에 걸쳐 금수산태양궁전과 주작봉마루를 찾아가는 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이 사업에 너도나도 참가하였으며 지성어린 물자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였다. 그 나날에 학생들은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으며 민족의 밝은 미래도 수령의 위대성에 달려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였다.

20여년이 흘렀어도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교직원, 학생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상급생들의 뒤를 따라 평양으로 이어진 충정의 길에 스스로 들어서고있다.

충정의 마음을 간직한 교직원, 학생들이기에 금수산태양궁전과 주작봉마루에서 다진 맹세를 지켜 교육교양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고있으며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하여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가는 나라의 역군으로 준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학교는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받았다. 뿐만아니라 로력영웅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수훈자들을 배출하였으며 10월8일모범교수자,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 우리 교실문학상수상자가 늘어나고 수많은 경연, 경기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교직원, 학생들의 불같은 열의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본사기자 지혁철

이역땅에 만발하는 애국의 꽃송이들

한 재일동포녀학생의 시를 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역땅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초급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정연한 민족교육을 통하여 동포자녀들이 참된 애국자로 자라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력사를 빛내일 청년핵심들과 젊은 동포상공인들을 비롯한 새 세대 동포군중핵심들이 육성되여 애국충정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고있는것은 총련의 긍지이고 힘의 원동력입니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천만군민의 고결한 충정의 대하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물결쳐흐르고있다. 그 성스러운 대하속에는 은혜로운 사랑의 젖줄기를 자양분으로 하여 자라나는 재일조선청소년학생들도 있다.

올해초에 진행된 제37차 재일조선학생 글짓기현상모집경연 《꽃송이》에서는 총련 오사까조선고급학교 리수련학생의 시 《꽃씨는 작아도》가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이 시는 필자가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들을 언제나 향기그윽한 꽃바다속에 모실 일념안고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꽃씨를 심으면서 다진 충정의 결의를 그대로 운률에 담은것이다.

…

오늘 우리가 심게 되는 꽃
뜨거운 결심 함께 안은
동무들과 심는 꽃
그 꽃에 나는
어떤 마음을 담을가

작은 꽃씨 한 꽃씨
그것은 머지않아
뿌리를 땅속으로 박으면서
줄기를 땅우로 펼치면서
고운 꽃을 피운다
그윽한 향기를 날린다

나는 여기에
꽃씨를 심어간다
결심의 꽃씨를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가듯
내 결심이 신념으로 뻗도록
줄기가 말없이 굵어지듯
참된 길우에 끄떡없이 내가
서도록
…

충정의 마음 꽃씨에 담아
정성스레 심는다
어머니같이 보드라운
조국의 흙
어머니같이 따뜻한
조국의 흙
젖냄새와도 같은
조국의 흙내를 맡으며
작은 씨앗을 심어간다

몸은 비록 이곳을 떠나건만
내 충정의 마음 불타는 마음은
조국에 심고 가리니
멀리 떨어질수록
언제나 조국의 꽃을 그리리라
세찬 바람 불수록
억세게 뿌리를 박으리라
조국인민과 같은 맘으로
해빛 향해 미래 향해
충정의 꽃송이
만발하게 피우리라

이 한편의 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절세위인들께서 총련애국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재일동포 새 세대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 드높은 애국의 숨결이 그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본사기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노래의 선률에 담아간다.
—옷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평양창광

세상에서 제일 고운 꽃

평양3월3일탁아소를 찾아서

3중영예의 1월10일모범탁아소인 평양3월3일탁아소는 두차례에 걸쳐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크나큰 영광을 안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은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고 우리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십니다.》

얼마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나라의 왕으로, 이 세상 제일 고운 꽃으로 활짝 피여나고있는 복받은 어린이들의 명랑한 모습에서 언제나 좋은것이 생기면 어린이들부터 먼저 생각하시며 다심한 은정을 부어주신 절세위인들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우리가 탁아소앞마당에 들어섰을 때는 마침 바깥놀이시간이여서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저마끔 그네를 먼저 타겠다고 싱갱이질을 하는가 하면 정각주변에서 술래잡기를 하는 어린이들도 있었다. 어떤 어린이는 포도나무, 살구나무를 비롯하여 과일나무들을 가꾸는 보육원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며 제법 따라하기도 하였다.

하나같이 복스럽고 귀여웠다. 우리는 이윽하여 한 보육원의 안내를 받으며 소장 리복금동무의 방으로 향하였다. 방의 벽면에는 탁아소를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이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문헌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소장은 매일 하루사업을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드리는 심정에서 진행하고있다고 하면서 탁아소에 깃든 크나큰 어버이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탁아소의 개원을 앞두고 이곳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리용하게 될 여러 방들을 돌아보시면서 방온도며 침대수를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어린이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때로부터 몇달후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으로 나라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던 긴장한 시기에 또다시 개원한 탁아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리용하는 침대와 이불을 손수 만져보시며 이불이 폭신폭신하니 아이들이 저절로 잠이 오겠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

소장은 다심하신 어버이의 그 사랑속에서 수령님의 넓으신 품에 안겨들며 응석을 부리던 사진속의 철부지어린이가 오늘은 보건부문의 일군으로 성장하였다고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가슴이 젖어드는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세상에 우리보다 더 고운 꽃은 없어요》라는 글은 수령님의 은덕아래 우리 어린이들이 누리는 행복한 생활을 집약적으로 표현한것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더욱 뜨겁게 안겨왔다.

정녕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걸음걸음 따뜻이 이끌어주신 은혜로운 사랑이 있었기에 이 땅의 어린이들은 조선의 꽃봉오리로, 조국의 미래로 활짝 피여날수 있은것 아니랴.

하기에 자연의 꽃은 피고지여도 탁아소의 모든 방들에 피여나는 아이들의 행복넘친 웃음꽃은 어느 한순간도 질줄 몰랐다.

우리는 그 웃음꽃을 더욱 활짝 피워가며 어린이영양관리와 지능계발사업에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김정복, 리금희, 허춘옥동무들도 만나보았다.

이윽고 탁아소앞마당으로 나오니 여전히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놀고있었다.

그늘 한점 없는 어린이들의 밝은 얼굴에서 우리는 다시금 확신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고운 꽃인 아이들의 웃음꽃이 어떻게 마련되고 피여날수 있는가를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다함없는 충정으로 받들어가는 우리 보육원들이 있기에 이 땅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 크게 울려퍼지리라는것을.

본사기자 김옥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의 대표단, 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4일 배준렬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과 김윤선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청진항과 남포항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김일성주석회고모임이 2일 청진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청진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키리바티국적선박 《뉴 글로벌》호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서거하시였으나 조선인민은 그이를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혁명, 나라와 인민, 조국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들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으며 위대한 수령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고계신다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 *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21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김일성주석회고모임이 3일 남포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남포시에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타이국적선박 《노다나 앤드리아》호, 빠나마국적선박 《아우타이》호, 《동승》호 선장, 선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선인민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하시고 조국을 수호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반드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도착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는 배준렬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발전하고있는 물절약형농법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물부족현상이 심각하게 제기되는것과 관련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발전시키고있다.

농업은 물을 많이 소비하는 부문이며 사회총용수가운데서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률은 발전된 나라들에서 50%,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에서는 70%라고 한다.

이로부터 세계적으로 농작물의 생육과 소출에 필요한 물소비량을 가능한껏 줄이면서도 그 수확고와 품질을 높이는 물절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물절약형농법에는 리용가능한 모든 물자원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물길과 농경지, 작물에서 물손실을 가능한껏 줄이고 물리용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들이 있다.

지난 시기 농업에서 물절약은 주로 관수설비와 관수기술에 의거하였지만 최근 물절약형농법은 생태환경보호와 농업의 지속적발전을 목표로 하고 정보기술을 비롯한 최신과학기술이 도입된 과학농법으로 발전하고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개용수의 유효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관개용수가 포전까지 흘러가는 과정에 물길에서 스밈과 증발을 줄여 관개용수의 유효리용률을 높이는데 물절약의 큰 예비가 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스밈막이재료를 리용하여 물길에서 물손실을 줄이고있는데 콩크리트가 널리 리용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물길을 콩크리트로 피복하면 스밈에 의한 물손실을 80~90% 줄일수 있다고 한다.

최근년간 여러 나라들에서는 고분자재료와 성능이 좋고 값이 눅은 흙경화제를 개발하여 스밈막이재료로 리용하고있다.

다음으로 작물의 물생리조절기능과 현대육종기술을 리용하여 작물자체의 물리용효률을 높이는 생물물절약기술을 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작물의 물에 대한 요구성은 생육단계에 따라 서로 다르다. 여러 나라들에서는 작물의 이러한 특성에 기초하여 작물의 일정한 생육단계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주지 않거나 뿌리를 부분적으로 건조시키는 물절약관수방법을 받아들이고있다.

주목되는 문제는 또한 비물과 오수, 짠물을 관수에 리용하고있는것이다.

비물, 오수, 짠물 등 물자원을 리용하는것은 물위기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도로 되고있다.

2007년 자료에 의하면 많은 나라들에서는 지리정보체계 등을 리용하여 보다 현대적인 비물리용기술을 연구하였으며 어느 한 나라에서는 수지로 된 비물저장시설을 공업적으로 생산한다고 한다.

도시오수를 처리하여 농업생산에 리용하는것과 함께 짠물을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있다. 여러 나라들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도마도, 수박 등 일부 작물에 0.45%짜리 짠물을 관수하면 열매가 더 달고 오래동안 보관할수 있으며 목화, 밀, 사탕무우에 반짠물(소금기농도 0.1~0.2%)을 관수하여도 생산량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최신과학기술을 리용하여 물절약관리를 부단히 현대화하고있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농업용수가운데서 90%가 관개용수로 리용되며 관수에서 물절약잠재력의 50%가 물절약관리에 있다고 한다.

여러 나라들에서는 정보기술, 3S기술, 열임풀스측정기술 등을 리용하여 작물의 물기날기량을 측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농경지토양의 물기변화와 적당한 관수량, 관수시기를 확정한다고 한다.

관개용수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지금 여러 나라들에서는 생물기술, 정보기술, 감시측정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기능이 다양하고 에네르기소비가 적으며 환경을 보호하고 조종을 지능화할수 있는 현대적인 관수설비들을 개발하고있다.

이밖에 새로운 물기보존제개발사업도 진행하고있다.

농업에서 물절약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물절약의 담당자인 농민들의 물절약의식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선전, 교육을 강화하여 농민들의 물절약의식을 높이며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세워 선진적인 물절약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바다가양식의 세계적추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바다를 낀 곳에서는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을 발전시켜 바다자원을 잘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다가양식이라고 하면 시설물을 설치한 일정한 바다수역에서 양식대상의 번식과 기르기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물을 목적하는 크기까지 기르는것을 말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수역의 설정과 어업환경의 파괴, 주요수산자원의 감소로 바다어로에 의한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있으나 바다가양식에 의한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있다.

그 원인은 바다가양식이 바다어로에 비하여 생산장성률이 높은데 있다.

최근년간 수산물생산장성률을 보면 바다어로에 의한 생산량은 해마다 1.6%로서 극한점에 도달하고있으나 바다가양식에 의한 생산량은 해마다 10~20%씩 장성하고있다.

다음으로 바다가양식이 수산물생산의 장성에서 예비가 많고 전망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것으로 주목되기때문이다.

많은 해양국들은 생산량이 높으며 생산이 안정되여있는 바다가양식을 21세기의 전망적인 산업으로 보고 적극 발전시키고있다.

바다가양식의 과학화, 전문화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다.

빨리 자라고 생산성이 높은 양식품종들을 받아들이고있으며 양식품종을 다양화하고있다.

다배체육종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사료단위가 낮고 성장속도가 빠르며 사름률이 높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다배체우량품종들이 도입되고있다.

전문종묘생산기지를 내오고 종묘생산의 집약화, 전문화를 실현하고있다.

수질이 좋은 위치에 표준화된 전문종묘생산기지들을 내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양식품종생산을 대량화, 과학화하며 원종을 보존하고 우량종을 선발육종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다.

바다가양식의 산업화수준이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고있다.

종묘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여 바다가양식의 대규모화, 다양화, 집약화가 실현되고있다.

바다가양식의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경영수준을 개선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바다목장의 건설과 운영이 확대되고있다.

바다목장을 여러가지 형태로 건설하고있는데 보통 바닥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거나 조건이 좋은 일정한 수역의 둘레에 그물우리나 생물행동조종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설하고있으며 그 규모는 수백~수천㎢에 달하고있다.

바다목장운영에서는 인공대량번식기술, 방류표식기술, 기르기기술, 유전자공학적인 성숙기술, 품종개량기술, 자동원격먹이조종기술, 음향 및 광학전자기술이 널리 리용되고있다.

그리고 양식대상종류별, 발육단계별에 맞는 여러가지 고효률배합먹이를 공업적방법으로 계렬생산하여 널리 리용하며 풍력 및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생산원가를 낮추고있다.

국가과학원 수산과학분원 부원 연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를 그리며 삼천리강토는 잠 못 이룬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숙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조국통일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해 참으로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우리는 눈을 감아도 조국통일을 하고 눈을 감아야 한다고 하시며 갈라져 사는 민족의 아픔을 한몸에 안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심장을 불태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늘 남녘동포들을 생각하면 오늘도 백두산에 서있는 기분이라고 하시며 백두련봉을 주름잡으시며 항일혈전을 벌리시던 그때처럼 조국통일을 위해 한시도 마음의 신들메를 풀지 않으시였다. 하기에 우리 겨레 누구나 조국통일이라는 말을 외울 때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앞서 솟구치는 눈물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분렬의 고통을 하루빨리 가시고 온 겨레가 얼싸안을 감격의 그날을 안아오시기 위해 정력적인 령도의 자욱을 이어가시던 나날에 아로새겨진 못 잊을 사연들은 그 얼마나 많은것인가.

남녘땅에 고향을 둔 전사의 감격

가렬처절한 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박눈을 맞으시며 한 인민군야전병원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입원실에 들어서시였을 때 거기에서는 두눈에 붕대를 감은 한 나어린 전사가 환자들앞에서 통쾌한 전투담을 신명나게 펼쳐놓고있었다.

꿈결에도 그리던 최고사령관동지를 뜻밖에 만나뵙게 된 환자들이 벌떡 일어나 환호를 올리려 하자 수령님께서는 이야기판의 흥취를 깨칠세라 손을 저으시며 통나무로 만든 침대우에 허물없이 앉으시였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이 나서 전투담을 계속하였다. 수령님께서는 환자들과 함께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마지막까지 들어주시였다. 어느덧 전투담을 마친 그 전사는 잠시 숨을 돌리고나서 안타까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미국놈들을 모조리 남해바다에 처넣고 해방된 고향땅에 김일성장군님을 모시자고 했는데 이 눈이 아무래도…》

안타까이 붕대를 매만지는 전사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있었다. 방금전까지 활기를 띠던 방안에는 잠시 침묵이 깃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전사에게로 다가앉으시며 고향은 어디인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고향이 대전이며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동생이 그곳에 있다는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들을 보고싶을테지 하고 조용히 외우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수령님께서는 병원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 동무의 눈을 꼭 고쳐주어야 하겠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미국놈들을 몰아낸 다음 부모들과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온 동무가 눈을 싸매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면 우리가 무슨 면목이 있겠는가. 이 동무가 자기 고향을 해방하고 부모들과 만날수 있게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을 꼭 고쳐주자. …

그 말씀을 듣고있던 전사는 비로소 무엇이 짐작되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눈에 감은 붕대를 안타까이 매만지였다. 그 광경에 환자들도 병원일군들도 솟구치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데 담당간호원이 더는 참지 못하고 《환자동무,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셨어요!》 하고는 얼굴을 싸쥐였다.

《최고사령관동지!》

전사는 허둥지둥 발더듬, 손더듬하며 그이의 앞으로 다가섰다. 두팔벌려 어린 전사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용감한 사람도 우는가고 다정히 등을 쓰다듬어주시며 달래시는 그이의 음성도 저으기 갈려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동무는 남녘땅에 있는 부모들을 꼭 만나야 한다고, 그러니 락심하지 말고 명랑하고 락천적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유격대원들은 병과의 투쟁을 곧 원쑤와의 투쟁으로 생각하였다고, 바로 그렇기때문에 부대와 몇달씩이나 떨어져있으면서도 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러 그이께서 자리를 뜨실 때였다. 치료를 잘 받으라고 하시며 마당으로 나오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발길을 돌리시여 다시 문가로 다가오시였다. 눈에 붕대를 감은 그 전사가 남들처럼 바래워드리려 따라나오지 못하고 문설주를 부여잡은채 손을 흔들고있었던것이다.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신 수령님께서는 다시금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동무는 눈을 빨리 고치고 남녘땅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꼭 만나야 하오!》

앞 못 보는 어린 자식을 둔 친부모의 심정이런듯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여 몇번이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시는 어버이수령님, 그이를 우러르며 환자들도 병원일군들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김일성장군님 고맙습니다!》

어느해 7월 조선서해에서 있은 일이다. 하늘을 뒤덮은 먹장구름은 심상치 않은 재난을 예고하고있었다. 하지만 남조선어민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가랑잎같은 배들을 끌고 날바다로 나갔다.

그들이 첫그물도 치기 전에 초속 수십m의 강한 태풍이 산더미같은 파도를 몰아왔다. 순식간에 돛대가 부러지고 배들이 부서졌다. 어민들이 부러진 돛대며 널쪼각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허우적거리는 광경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바로 이때였다. 인민군 해군경비정들이 수난자들을 향해 파도를 헤가르며 쏜살같이 달려왔다. 조난당한 남조선어민들이 태풍에 밀리워 북반부수역으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그들을 꼭 구원해야 한다고 하시며 사랑의 긴급명령을 하달하시였던것이다. 생사기로에서 헤매이던 남조선어민들은 이렇게 되여 구사일생으로 구원되였다.

어민들이 모두 구원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며 부상자들과 허약자들을 지체없이 병원에 입원시켜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들이 모진 천대와 고역에 시달리면서 어느 하루라도 편히 쉬여보았겠는가고 하시며 금강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구원된 어민들가운데에는 예순번째 생일을 맞는 로인이 있었다. 이 사실을 아신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차려주도록 하시였다. 사랑의 비단옷을 입고 풍성한 생일상에 마주앉은 로인의 주름깊은 얼굴에서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였다. 다른 어민들도 모두 감격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였다.

로인에게 시집갈 나이의 딸이 있다는것을 아신 수령님께서 그의 첫날옷감까지 마련해주시였다는것을 알았을 때 어민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나이찬 자식의 다 해진 옷을 기워줄 한조박의 천도 없어 눈물짓던 안해의 얼굴이며 더덕더덕 기운 옷을 걸치고 남보기가 부끄러워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하던 불쌍한 딸의 정상을 보며 가슴을 쥐여뜯던 나날이 떠올라 로인은 끝내 오열을 터치고야 말았다.

자는 잠은 칠성판이요 먹는 밥은 사자밥이라는 구슬픈 《배따라기》를 부르며 거치른 날바다에 몸을 내맡기던 천덕꾸러기들, 《배놈》으로 천시받던 그들이 과연 언제 이런 살뜰하고 사려깊은 사랑을 받아본적 있었던가.

《김일성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감격의 웨침이 그들모두의 심장속에서 합창마냥 터져나왔다.

남조선어민들에게 돌려주신 수령님의 이토록 뜨거운 사랑은 온 남녘땅 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신 민족의 어버이의 한량없는 은정이였다.

그리운 혈육들에게 편지를 쓰라

주체56(1967)년 1월초 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본에서 홀로 귀국한 재일동포자녀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를 기별도 없이 찾아주시였다. 뜻밖의 소식에 방마다 급히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저마다 앞을 다투어 달려나왔다.

모두들 설을 잘 쇠였는가고 물으시는 수령님의 안광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어려있었다. 그들의 학습과 생활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문득 한 학생에게 부모들은 일본 어디에서 사는가고 다정하게 물어주시였다.

《오사까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

머리를 푹 숙이고 머뭇거리는 그 학생에게 수령님께서는 다시 물으시였다.

《왜? 어머니가 안 계시오?》

《어머니는 저의 형제들과 함께 부산에 있습니다.》

순간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러니 한가정이 세곳에 갈라져있는셈이라고 조용히 뇌이시는 그이의 어조는 몹시 침통하였다. 미제가 강요한 민족의 분렬로 이 땅의 평범한 가정들이 겪는 통절한 비극에 가슴이 답답하신듯 수령님께서는 좌중을 둘러보시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였다.

《이 동무의 가정을 보면 남조선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고 아버지는 일본에 있고 이렇게 지금 세곳에 갈라졌는데 자,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장내에는 숨막힐듯 한 정적이 깃들었다. 손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시는 수령님, 그이의 안타까우신 심정이 사무쳐와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창밖을 한동안 바라보시였다. 새해를 맞은 수도의 거리에는 소담한 눈송이들이 춤추며 내리고있었다.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안고 활기있게 걸어가는 사람들, 대동강유보도쪽에서 울려오는 학생들의 청아한 노래소리…

생활은 저토록 환희롭게 흘러가고 이 땅우에서는 행복이 무르익고있건만 사람들의 가슴속 한구석에는 이토록 가슴아픈 사연들이 맺혀있다. 인간은 우주를 정복하기 시작하였고 만리길도 하루면 다 갈수 있게 되였건만 우리 민족만은 이토록 뿔뿔이 헤여져 살고 사랑하는 혈육들을 지척에 두고서도 소식 한장 전하지 못하고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비극이 또 어데 있겠는가. …

조국통일의 절박성에 대하여 다시금 사무치게 느끼시며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결연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통일은 문제없이 된다. 공부를 더 잘하라.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쓰라. 우리는 통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잘한다고 편지를 쓰라.

그이의 말씀은 정다운 고향과 사랑하는 혈육들을 남녘땅과 이역에 두고있는 학생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고 그들의 가슴속에 꺼질줄 모르는 통일애국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그날밤 기숙사는 밤바다마냥 웅실거렸다. 학생들 누구나 잠들지 못하고 일본에 있는 혈육들에게, 남조선에 있는 혈육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해내외 온 겨레가 태양의 따사로운 품속에 안겨 만복을 누려갈 그날을 그려보며.

본사기자 허영민

인권유린자들의 파렴치한 도발

남조선괴뢰들이 반공화국《인권》모략에 갈수록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난 1일 괴뢰패당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는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북인권백서 2015》라는것을 발간하는 놀음을 벌렸다. 이것은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에 먹칠하고 북남대결을 더한층 격화시키려는 괴뢰들의 비렬한 술책의 발로로서 자기 존엄, 자기 제도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다. 괴뢰들이 최근 서울에 유엔《북인권사무소》라는 반공화국모략기구를 끌어들인데 이어 이번에 《북인권백서 2015》라는 협잡문서까지 꾸며낸것은 그들의 체제대결광기가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북인권백서 2015》라는것은 괴뢰들이 자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부모처자들까지 버리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의 허접스러운 거짓말들만 잔뜩 긁어모은 너절하기 짝이 없는 오물보따리에 불과하다. 비루한 명줄부지에만 신경쓰는 가련한 밥벌레들이 무슨 거짓말인들 주어섬기지 못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짐승보다 못한 추물들에게 매달려 《북인권백서》를 발간한다 어쩐다 하고 분주탕을 피웠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자들인가. 괴뢰들이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발광하면 할수록 그것은 모략과 도발에 이골이 난 저들의 더러운 정체만을 낱낱이 드러낼뿐이다.

제코도 씻지 못하는 괴뢰들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나발질하는것은 세상사람들을 웃기는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현 괴뢰집권세력은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락시킨 특등인권범죄자들이다. 《유신》의 바통을 물려받은 괴뢰당국자들은 피비린 파쑈통치와 반인민적악정을 일삼으면서 남조선을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민주와 인권의 황량한 페허로 전락시켰다. 악명높은 파쑈교형리가 버젓이 《총리》감투를 쓰고 무고한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탄압하면서 민주주의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있는 곳도 남조선이고 반역통치배들의 억압에 시달리던 최하층 근로자들과 실업의 나락에서 헤매이던 청년들, 사회의 버림을 받은 불쌍한 로인들이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며 눈물겨운 자살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몸서리치는 지옥도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실지 필요한것은 《북인권백서》가 아니라 남조선인권백서이다. 인권의 피고석에 꿇어앉아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극악한 인권교살자들이 수치도 모르고 《북인권백서》발간놀음을 벌린것이야말로 신성한 인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서 삶은 소대가리도 폭소를 터칠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괴뢰들은 그 누구의 《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고 시비질할것이 아니라 저들의 치떨리는 반인권적죄악부터 돌이켜보아야 한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인권》의 간판밑에 감행되는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도발소동이 범죄적인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려는 흉계의 산물로서 북남관계의 파국을 부채질하고 나아가서 전쟁을 몰아온다는데 있다.

지금 북남관계는 미국과 함께 《대북압박》공조의 강화를 꾀하며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기승을 부리는 남조선괴뢰당국의 분별없는 망동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위기에 빠져있다. 얼마전 괴뢰당국이 미국에 추종하며 도발적인 《대북금융제재》조치까지 공포함으로써 북남관계는 그야말로 다치면 터질듯이 팽팽한 폭발국면에 처하였다. 그러한 정세하에서 벌어진 《북인권백서 2015》발간놀음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것인가 하는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총포소동에 결코 못지 않은 극악무도한 도발이다. 날로 광기를 띠는 괴뢰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으며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끝장낼수 없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감히 건드리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반공화국《인권》모략군들은 저들의 일거일동이 징벌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거망동의 대가는 비참한 파멸뿐이다.

은정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남조선당국이 금강산관광중단책임을 회피해보려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남조선에서 보수패당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하여 장기간 중단된 금강산관광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관계자들은 7년간이나 지속되고있는 관광중단으로 인하여 금강산에 있는 투자시설물들이 심히 부패, 파손되고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괴뢰당국에 요구해나서고있다.

이들은 금강산관광중단으로 인한 손실액이 천문학적액수에 달하고있지만 괴뢰당국이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도 보상도 하지 않고있다고 울분을 토로하고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당국이 피해기업들에 실질적인 보상을 할수 있도록 《피해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든가 아니면 당국이 자기들의 투자자산을 즉시 인수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위해 금강산관광재개를 가로막고있는 괴뢰패당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표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당국은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관련법규에 따라 지난 시기 자금대출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여왔다고 아닌보살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마치 우리가 저들이 요구한 관광재개를 위한 대화제의에 응해나오지 않는데 있는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집권 첫날부터 온갖 부대조건을 내세우며 관광재개를 한사코 가로막아온 괴뢰패당이 오히려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보려고 발악하는것은 저들에 대한 남녘민심의 반감을 눅잦히려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내외가 공인하고있는바와 같이 우리와 남조선 현대그룹사이의 합의에 따라 시작된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은 6.15시대와 더불어 근 10년간이나 성과적으로 진행되여오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6.15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이 중단된것은 남조선괴뢰보수패당이 관광객사건을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그 누구의 돈줄이니 뭐니 하며 관광재개를 고의적으로 가로막아왔기때문이다.

괴뢰패당이 아무리 흑백을 전도하고 진실을 가리워보려고 잔꾀를 부려도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고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 악행은 절대로 감출수도 무마시킬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을 헤아려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사업에 아량을 가지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으며 지금도 관광길을 열어놓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길을 가로막고있는것은 바로 괴뢰보수패당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괴뢰패당이 우리가 진행하고있는 금강산국제관광에 대해 《합의파기》니, 《국제법위반》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다못해 다른 나라들에 찾아다니며 금강산에 관광객들과 투자가들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애걸하는가 하면 해외기업가들을 위협공갈하는 놀음까지 벌리고있는것이다.

우리가 금강산지구를 국제관광특구로 선포하고 국제관광을 하는것은 우리의 주권행사로서 괴뢰패당이 이를 놓고 무엄하게 시비하는 행위는 오히려 우리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국제적망신만을 초래할뿐이다.

진실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는 법이다.

괴뢰패당이 부질없는 망발로 엄연한 진실을 가리우려 해도 그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다.

괴뢰패당은 이제라도 철면피한 놀음을 걷어치우고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에 매여달리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성이 6월 21일 성명을 발표하여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위협에도 단호히 맞설 립장을 강조하였다.

이란은 지난 수십년간 외세의 압력을 반대하여 싸워왔다고 하면서 성명은 이란무장력이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할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란무력 총지휘참모장이 최근 자기 나라의 군사시설들에 대한 렬강들의 사찰기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이란의 이슬람교혁명과 체제를 반대하는 적대세력들이 그 무슨 《합의》나 《협정》의 구실밑에 군사기지들에 대한 사찰을 강요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란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존엄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그러한 사찰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또한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6월 27일 국영텔레비죤방송과의 회견에서 평화적핵권리와 리익을 수호할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렬강들과의 최종핵합의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합의시간이 중요치 않다, 중요한것은 회담상대측이 이란의 권리를 인정하고 부당한 제재와 요구를 철회하는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란정부와 인민은 핵회담에서 렬강들의 무리한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것이며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끝까지 수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로씨야에서

로씨야의 동부군관구에서 최근 기계화보병들과 땅크병들의 군사훈련이 시작되였다.

훈련에는 1 000여명의 군인들과 약 300대의 군사기술기재들이 동원되였다.

훈련에서 군인들은 매복을 물리치고 비행대의 공습을 격퇴하는 방법을 련마하게 된다고 한다. 6월 30일 동부군관구 공보부가 밝혔다.

꾸바에서

꾸바에서 국내산 콜레라왁찐이 새로 개발되였다.

두단계의 림상실험을 거친 효능높은 이 왁찐은 콜레라환자치료에 큰 도움을 줄것이라고 한다. 6월 25일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혔다.

이란에서

이란에서 얼마전 500t급 국내산 상륙정을 페르샤만수역에 진수하였다. 길이가 48.5m, 너비가 12m, 높이가 3m인 이 상륙정은 이란의 해군무력강화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인디아에서

인디아에서 소아마비방지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최근 이 나라 보건성은 예방접종사업을 강화하고 발병감시체계를 빈틈없이 세운 결과 지난 4년동안 나라에서 단 한명의 소아마비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꽁고에서

민주꽁고의 킨샤사에 있는 국제비행장에 항공역사와 관제탑이 새로 건설되여 준공하였다.

6월 25일 이 나라 대통령의 참가밑에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새 항공역사와 관제탑은 비행장의 려객수송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네팔에서

네팔정부가 최근 지진피해를 가시기 위한 복구위원회를 설립할데 대한 법령을 작성하였다.

법령에 따라 수상이 이끄는 복구위원회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조사하고 파괴된 하부구조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게 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5년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범죄 성행

범죄의 왕국인 미국에서 최근 총기류범죄사건이 련이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고있다. 6월 13일 오하이오주의 콜럼부스시에서 정체불명의 무장범죄자가 한 살림집에 뛰여들어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4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다.

이에 앞서 12일 아이오와주의 코럴빌시에 있는 상점거리에서 무고한 녀성이 범죄자의 총에 맞고 목숨을 잃었다.

사건발생직후 현장은 일대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한다.

경제 침체

오스트랄리아의 한 경제단체가 6월 30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5월에 전국적인 살림집판매량이 그 전달에 비해 2.3% 감소되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아일랜드의 소매업체들에서는 판매량이 2.5% 줄어들었다 한다.

실업자 증대

프랑스에서 5월에 실업자수가 355만 2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달보다 1만 6 000여명 더 많은것이라 한다. 6월 24일 이 나라 로동성이 밝혔다.

자살 성행

일본에서 자살현상이 우심해지고있어 커다란 사회적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서 발표된 한 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2만 5 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자살하였는데 그중 남성과 녀성비률이 각각 68%, 32%라고 한다. 자살동기는 가정형편이 악화되고 가족들사이의 불화가 심해져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은데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귀결이다.

집없는 사람들의 처지

에스빠냐에서 집없는 사람들이 폭력과 억압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집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자기들이 폭행을 당한적이 있다고 울분을 터놓았다.

특히 집없는 사람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마드리드, 바르쎌로나, 빌바오 등 8개 대도시들에서 우심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맞날이 없는 자본주의사회

그리스에서 당국의 부당한 긴축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국제적규탄을 받는 세계최악의 인권후진국

지난 5월 중순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산하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 실무그루빠회의가 미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채택한 때로부터 한달반이 넘는 시일이 흘렀다.

당시 회의에서는 110여개 나라 대표들이 미국에서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는 인권유린행위들에 대해 신랄히 폭로단죄하고 한심한 인권상황을 바로잡을데 관한 약 350건의 권고안을 미당국에 제기하였다.

참가자들은 저저마다 미국에서 경찰의 폭행과 인종주의 및 인간증오현상이 계속 늘어나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특히 각지에서 일어난 주민들의 대중적인 항의시위를 미국이 빈번히 무력으로 진압하고있는것을 강하게 문제시하였다.

궁지에 몰린 미국측 대표라는자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많기때문에 9월에 가서 구체적인 답변을 줄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겨우 모면하였다. 약속대로 한다면 미국은 보고서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올해 9월에 시작되는 유엔인권리사회 제30차회의때까지 답변을 해야 한다.

외신들은 이러한 소식을 전하면서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며 세계도처에서 못된짓만 골라하는 미국이 인권재판정의 심판대에 올랐다고 야유조소하였다.

해마다 남의 나라 인권문제에 대해 부피두터운 《년례보고서》를 강짜로 만들어내느라고 부산을 피우던 미국이 자국의 한심한 인권실태를 폭로하는 수백건에 달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고발장에 일일이 답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으니 꼴좋게 되였다.

물론 국제사회는 몇달후에 미국이 자국의 인권실태에 대해 정식 답변하지 않아도 그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다. 미당국자들자체가 스스로 인권유린국임을 실토하고있기때문이다.

최근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바마까지도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이 인종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토설하였다.

이것은 부르죠아어용출판물들과 미국정객들이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만민평등》이란 한갖 저들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허울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에서 인종주의가 자취를 감추었다는것 역시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는것을 낱낱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종주의가 뿌리깊은 나라이다. 인종차별, 흑인증오야말로 미국의 고유한 사회적풍조이다. 일찌기 노예사냥, 노예무역을 통해 수많은 흑인들을 아메리카로 끌고간 미국의 백인인종주의자들은 흑인들을 말하는 도구로 취급하면서 마음대로 팔고 사고 때리고 죽이였다. 백인인종주의자들은 흑인들을 목매달아죽이고 불태워죽였는가 하면 총으로 쏴죽이고 칼로 찔러죽였으며 기계안에 집어넣어 온몸의 뼈를 부스러뜨려죽이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형성전부터 흑인증오, 인종차별이 극도에 이른 나라이다.

오늘날 흑인이 대통령이 되였다고 하여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낮에 살인행위가 빈번하여 살인왕국의 칭호를 받고 흑인들과 소수민족들에 대한 박해로 인종주의서식장으로 불리우는 나라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흑인살해범죄가 큰 문제로 되지 않고있다.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뉴욕, 로스안젤스를 비롯한 전역을 휩쓸고있지만 미당국은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을 총칼로 무참히 짓뭉개고있다.

얼마전 미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응답자들이 자기 나라가 아직도 피부색갈에 의해 좌우되는 사회이며 흑인인 오바마가 취임한 후 인종차별이 더 심해졌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 인종차별문제가 론의되는 나라가 있다는것은 인류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미국이 《인권재판관》행세를 하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정의와 량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아메리카식인종후예들의 철면피성을 드러낸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미국은 수치를 느껴야 한다. 남의 나라에 대한 삿대질을 그만두고 한심한 제 집안일에나 신경을 쓰는것이 좋을것이다. 인권후진국 미국은 주제넘은 《인권재판관》행세를 그만두어야 한다.

본사기자 리현도

ㄱ-51104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